

1.

제시문 (가), (나), (다) 모두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시문들에서 다루고 있는 아름다움은 인공미와 자연미로 구별할 수 있다. 각 제시문들은 인공미와 자연미가 대립하는 것인지, 반대로 조화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제시문 (가)는 자연미와 인공미를 대립적인 것으로 상정하며 인공미는 부정적인 것으로, 자연미는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 (가)의 화자는 매화의 아름다움이 성기게 하거나 결가지를 쳐내는 등의 인공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연적일 때 진정으로 발현된다고 보았다. (가)의 화자는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서 탄생한 인공미를 갖춘 매화를 병들었다고 하며 인공미의 폐해를 지적한다. 이렇게 (가)가 인공미를 부정하고 자연미를 극찬한 반면에 제시문 (다)는 (가)와 반대로 오직 인위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다)는 르네상스 시대의 우아함을 연출하는 행동이 모두 인위적으로 의도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인공미를 자연미보다 우위에 두는 미적 견해로서 (가)가 보이는 미적 견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가)와 (다) 모두 인공미와 자연미 둘 중 하나의 형식을 긍정하고 그와 다른 형식을 대립되고 배척하는 입장을 갖는 반면에, 제시문 (나)는 자연미와 인공미를 상반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를 긍정하며, 이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이 발현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무량수전의 여러 건축 기법들을 예찬한다. 이는 (다)와 같이 인공미를 긍정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가)는 (다)와 달리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또한 예찬하며 (다)가 배척하고 (가)는 중시했던 자연미까지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가)와 (다)는 아름다움에 대한 서로 상반되고 합치될 수 없는 입장을 보이지만 (나)는 다른 두 제시문들이 갖고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융합한 조화로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제시문 (라)의 두 그림은 각각 자연미와 인공미를 상징한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가공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미를 나타내고,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세공기술을 통해 인강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미를 나타낸다. 우선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두 다이아몬드 중 더 아름다운 것은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다. (가)는 인공미를 배척하고 오직 자연미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강의 기술로 만들어진 물방울 다이아몬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것이다. (가)와 반대로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두 다이아몬드를 평가하면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원석보다 높게 평가할 것이다. 인간의 기술로 물방울 다이아몬드라는 예술을 이뤄낸 것에 대한 의의도 강조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들어갔을 장인의 정성에도 (다)는 주목했을 것이다. 즉, 물방울 다이아몬드란 인공미의 총집합체이기에 (다)는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평가하고, 아무런 인간의 작위가 가미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해선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 쪽은 아름답고 다른 쪽은 부정적 견해를 펼치는 (가), (다)와는 달리, 제시문 (나)는 두 다이아몬드 모두 아름답다고 평가할 것이다. (나)는 인공미와 자연미 모두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것의 아름다움을 평가할 땐, 확실적인 단 하나의 기준에 의해 아름다운지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는 자연적인 매화에 대해 긍정의 평가를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나 (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재된 매화, 즉 인공미가 가미된 매화 또한 충분히 아름답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분재된 매화는 그렇지 않은 매화보다 경제적으로 상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경제성의 관점에서 인공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 관점에서 또한 인공미에 긍정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세밀한 조각기술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느 한 가지 관점에서 하나의 평가를 내리는 것 말고도, 다양한 관점, 상황 등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다.

-----

를 써보았습니다. 첨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제 답안을 보면 맨처음 (가)를 언급할 땐 제시문(가)라고 그대로 쓰고 그 다음부터 (가) 이렇게 쓰고 다른 (나) (다)들도 처음엔 제시문(나) 라고 쓰고 그 다음부터 (나) 라고 쓰는데요. 이렇게 써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 언급하던 다시 언급하던간에 계속 제시문(가) 이렇게 그대로 써야하는 건가요?